

'기생충' 흑백판 특별 상영

CJ엔터, "29일부터 시작 상영 규모는 크지 않을 듯"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흑백판이 29일 특별 상영을 시작한다.

8일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기생충' 흑백판이 오는 29일부터 특별상영을 한다. 상영 규모는 미정이지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이미 개봉해 5월부터 인터넷TV(IPTV)와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국내 개봉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은 2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이후 해외에서 다시 흥행몰이를 했으며 '기생충' 흑백판 개봉도 확정했다.

'기생충' 흑백판은 당초 2월26일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개봉을 미뤘다.

'기생충' 흑백판은 봉준호 감독과 흥행표 촬영감독이 한 장면, 한 장면씩 콘트라스트와 톤을 조절하는 작업을 거쳤다. 흑백의 아름다움



영화 '기생충' 흑백판 스틸 컷.

과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봉준호 감독은 "로테르담에서 '기생충'을 흑백으로 보니 화면에서 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배우의 섬세한 연기 디테일이나 뉘앙스들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사라지니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며 관련 포인트를 전한 바 있다. /뉴시스

2년동안 미국서 개봉못했던 우디 앨런 신작 국내 개봉

티모시 살라메 · 셀레나 고메즈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이달 말에

우디 앨런이 메가폰을 잡고, 티모시 살라메와 엘르 패닝, 셀레나 고메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A Rainy Day in New York)'이 4월 말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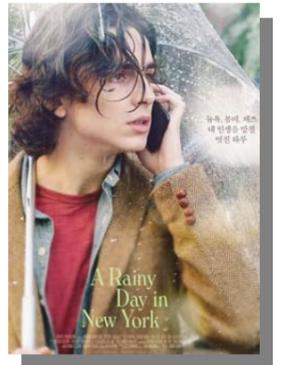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은 뉴욕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뉴욕커 '개츠비'(티모시 살라메), 영화에 푹 빠진 대학생 기자 '애슐리'(엘르 패닝), 봄비와 함께 찾은 새로운 인연 '첸'(셀레나 고메즈)의 운명같은 만남과 로맨틱한 해프닝을 담은 영화다.

개봉일 확정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는 빗속에서 우산을 쓴 채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는 티모시 살라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세간의 기대 속에 2017년 촬영을 마쳤으나, 우디 앨런 감독이 '양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년여간 개봉되지 못했다.

우디 앨런이 전 부인인 배우 미아 패로와 함께 입양했던 양녀 딜런 패로는 2014년에 "7살 때부터 우디 앨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티모시 살라메는 지난 2018년 '폴 미 바이 유



어 네임'으로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을 당시 "우디 앨런과 함께 작업한 것을 후회한다"며,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출연료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음원사재기' 주장 반발

볼빨간사춘기 · 하이라이트 이기광 등 소속사들 "법적 대응 강구"

'볼빨간사춘기', 그룹 '하이라이트' 이기광 등이 국민의당의 '음원 사재기'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명예가 훼손이 됐다며 법적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볼빨간사춘기 소속사 쇼파르뮤직은 8일 뉴시스에 "국민의당이 음원사재기를 시도했다고 언급한 회사는 알지도 못하고 주장 이후 찾아보니 심지어 볼빨간 사춘기가 데뷔한 뒤 몇년 뒤에 설립된 회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볼빨간사춘기는 이날 국민의당 측이 거명한 것만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음원차트 강자로 통할 만큼 팬덤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파르뮤직은 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쇼파르뮤직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지만 거명된 것만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기 위해 회사 법무팀과 상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지목된 다른 가수들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뉴시스에 "음원사재기는 보도로만 접하고, 우리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김 후보 측의 주장은 당황스럽다"면서 "명예 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예 소속사 더하킴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사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사재기를 의뢰하거나, 시도한 적조차 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으며 지금까지 송하예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 모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언더마케팅 기업 크레이티브가 불법으로 취득한 일반인의 ID를 악용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 및 증거가 있다"면서 "크레이티브와 더불어 파생된 리온티홀딩스가 언더마케팅을 시행했다고 확인된 가수는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크레이티브는 이 과정에서 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 바이럴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아이유 등 타 뮤지션의 음원을 동시에 재생하는 등 방해막이를 여러 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불법 해킹된 다음 및 멜론 ID 1716개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넷플릭스 '리얼' 액션 구출극 예고편만 봐도 '스릴 만점'

영화 '익스트랙션' 메인 예고편 공개... 본작은 24일부터

넷플릭스 영화 '익스트랙션'이 8일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익스트랙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납치된 의뢰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이 거대 범죄 조직에 맞서 벌이는 '리얼' 액션 구출극이다.

공개된 예고편은 전직 용병 '타일러'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거대 마약 조직간에 벌어진 힘겨루기 속 납치된 마약왕의 아들 '오비'를 홀로 구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목숨을 건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타일러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 삼아 거친 싸움 끝에 소년을 구해낸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적들의 끊이지 않는 공격에 두 사람은 이내 궁지에 몰린다. 모두가 소년을 포기하라는 그때 타일러는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자신을 놔두고

갈 것이냐는 오비의 물음에 이 임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다.

총탄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일촉즉발의 도시를 두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린다.

'익스트랙션'은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감독한 루소 형제가 제작한 넷플릭스 영화다. 루소 형제와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온 무술 감독 출신 샘 하그레이브는 이 작품으로 장편 연출에 데뷔한다.

여기에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에서 '토르'로 활약해 왔던 크리스 험스워스의 변신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웃음기를 빼고 돌아온 그는 타격감 넘치는 시원한 액션은 물론 화려한 총격전과 카체이싱까지 뽐낸다.

영화 '익스트랙션'은 오는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뉴시스



순창이 참좋다

꿈꾸어온 귀농의 삶

순창에서 시작하세요!